

지역 소식통

고창군, 스마트스토어 농업인 입점전략 등 교육

고창군이 지역 농업인을 대상으로 인터넷 판매물과 유명 블로그 운영전략 등을 교육한다고 7일 밝혔다.

농업인 정보화교육은 2개 과정(네이버 스마트스토어 입점전략, 블로그 인플루언서 되기)으로 운영된다.

고창군은 농·특산물을 생산하는 농업인이 손쉽게 쇼핑몰을 개설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스마트 스토어 기초반을 다음 달부터 3월까지 운영한다.

스마트스토어는 개인 홈페이지 대비 손쉽게 쇼핑몰을 만들고 수수료도 적다. 특히 소비자들을 유치하는 점에서도 유리해 다수의 농업인들이 운영하고 있다.

또 '블로그 인플루언서(영향력있는 유명인)' 교육과정도 3월부터 운영할 계획이다. 스마트 스토어과정과 블로그 인플루언서 교육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1월 7일부터 24일까지 농업기술센터 농업경영팀에 접수하면 된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농가가 유통과 판매까지 가능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고창=김영식 기자

부안군, 쌀직불금 군비 74억 지급

부안군은 21년산 쌀 직불금 군비 74억원을 농가 소득안정을 위하여 1월 10일부터 지급하기로 했다.

군비 쌀 직불금은 관내 쌀생산 기반을 보호하고 지난해 가을장마에 따른 농업인 소득보전을 위해 5,534호, 1만3,300ha 면적에 군비 74억원의 보조금을 지원한다.

사업비 지원대상은 부안군에 주소지를 두고 전라북도 농지를 경작하는 농업인이 해당되며, 5ha미만 경작자에게는 58만원/ha, 5ha이상 경작자에게는 58만18,000원/ha의 직불금을 지급한다.

부안군은 "연초에 쌀직불금 군비를 지급함으로써 농업인들의 소득 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며, 농업활동을 통한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부안=김석진 기자

“얼어붙은 지역경제 활성화”

정읍시, 코로나 피해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 나서

정읍시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내 기업들을 대상으로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지원 방안 마련에 나섰다.

시는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과 자금난 완화를 위해 2022년도 경영안정자금을 조기 지원한다고 밝혔다.

올해 경영안정자금 용자 규모는 50억원이다. 지원 대상은 지역 내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으로 제조업 전업종 30% 이상인 제조업체다.

지원 조건은 업체당 3억원 한도로 2년 거치 일시 상환 또는 2년 거치 2년

균분 상환이며 연중 수시로 신청할 수 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경영안정자금은 일시적인 자금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을 돕기 위한 사업이다.

시는 코로나19로 경영 환경이 어려운 중소기업을 위해 시비로 3%의 이자 차액을 보전하며 업체의 실질적인 부담 금리도 낮췄다.

현재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지원받고 있는 모든 업체는 코로나19로 인한 매출액 감소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 이차보전율을 신청할 수 있다.

이 밖에도 시는 근로환경이 열악한 기업의 복지시설 확충과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중소기업 환경개선 지원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사업'과 '맞춤형 기술 인력 지원사업' 등 다양한 시책을 통해 기업의 안정적 운영에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얼어붙은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지역 중소기업에 대해 자금 지원뿐만 아니라 애로사항 해소 등 기업 경영 지원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시는 아동의 권리와 복지를 증진하고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아동수당의 지원 대상을 기존 만 7세 미만에서 만 8세 미만으로 확대해 지원한다고 밝혔다.

“아이 키우기 좋은 정읍시”

정읍시, 올해부터 아동수당 만 8세 미만까지 확대

정읍시가 올해부터 아동수당을 확대 지급한다.

시는 아동의 권리와 복지를 증진하고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아동수당의 지원 대상을 기존 만 7세 미만에서 만 8세 미만으로 확대해 지원한다고 밝혔다.

2021년 만 7세 미만의 아동 약 3,519여 명에게 지급된 아동수당을 만 8세 미만으로 확대하면 지역 내 아동 700여 명이 추가로 아동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2022년 1월 기준 만 8세 미만(2014년 2월 1일 이후 출생)은 만 8세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 달까지 아동수당을 받는다.

다만 전산시스템 개편 등 시행 준비로 인해 아동수당 개장일은 2022년 4

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아동수당을 받다가 만 7세가 돼 이미 지급이 중단됐거나, 중단될 아동(2014년 2월 1일~2015년 3월 31일 출생)에 대해서는 2022년 4월에 아동수당 지급 시 2022년 1~3월분을 소급해 지급한다.

기존에 아동수당을 받았던 경우라면 별도로 신청할 필요가 없고, 신규신청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포, 정부24(www.govkr)에서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아동수당의 지원 연령 확대가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아이 키우기 좋은 정읍시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산업·농공단지 기업체 통근버스 운행료 60% 지원

정읍시, 근로자 교통 불편 해소·출퇴근 비용부담 절감 기대

정읍지역 11개 산업·농공단지 근로자들의 출퇴근 교통편의와 주차환경이 크게 개선될 방침이다.

시는 올해 2월부터 12월까지 전라북도 최초로 산업·농공단지 기업체를 대상으로 통근버스 운행 시 운행료의 60%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통근버스 운행료 지원사업은 정읍지역 내 통근버스를 활성화시켜 근로자 출퇴근 편의를 지원하고자 하는 근로환경 개선사업이다.

총사업비 8억4천만원(시비 5억4천만원, 자부담 3억3,600만원)이 투입되며 전액 시비로 추진된다.

지원 대상은 산업·농공단지 내 근로자 수 50인 미만 기업체다.

신청 기한은 1월 18일까지로 정읍시청 미래첨단산업과 기업지원팀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사업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정읍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사업 선정자는 오는 27일 개별 통보할 방침이다.

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근로자들의 교통 불편 해소와 비용부담 절감, 타 지역 거주 근로자의 지역 내 정착 도

모, 신규 일자리 창출, 기업 유치 가속화 등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단지 입주 기업체와 전세버스 간의 직접 계약을 통해 추진되는 만큼 코로나19 장기화로 침체한 전세버스 업계의 경기 활성화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읍=김대환 기자

고창군, 올해 농촌주택개량사업 신청접수... 신축 최대 2억원까지

고창군이 농어촌지역의 낡고 오래된 주택 개량을 위해 발 벗고 나섰다.

고창군은 노후주택 개량을 통해 삶의 질을 높이고, 도시민의 귀농귀촌을 유도하기 위해 '농촌주택개량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농촌주택개량사업의 대출한도는 신축 최대 2억원, 증축 최대 1억원이다. 금리는 고정금리 2% 또는 변동금리 선택, 대출상환은 1년 거치 19년 분할상환 또는 3년 거치 17년 분

할상환이 선택가능하다.

다만, 단독주택의 연면적 150㎡이하 일 경우에만 용자지원이 가능하다.

사업대상자로 확정된 자는 측량비가 30% 감면되고, 본인과 그 가족이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주거용 건축물에 대한 최대 28만원까지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대상자는 세대주로서 노후·불량주택 수리하는 주민(기존주택 철거), 무주택자, 귀농·귀촌자 중 농촌주택

개량사업을 희망자가 해당된다.

특히 지난해부터 내·외국인 근로자 복지를 위해 주택(숙소)을 제공하려는 농어촌지역 농어업분야 입주기업과 농촌지역 거주 농업인이 추가됐다.

신청자는 해당 읍·면사무소에 오는 28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고창군 관계자는 "농촌주택개량사업으로 쾌적한 주거환경개선은 물론,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들의 정주 여건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주산면 소주마을 설병덕씨, 면지 편찬 100만원 협찬

지난 7일 부안 주산면 소주마을 설병덕씨가 '주산면지' 편찬을 위해 추진위원회에 100만원을 쾌척하였다. 설병덕씨는 전 주산면 주민자치위원장으로서, 현재 주산면 주민자치위원회 고문 및 체육회 위원을 맡으며 지역사회 발전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 참여해오고 있다.

설병덕씨는 "주산면지가 마을 곳곳의 이야기를 담고 주민들이 공감하고 추억할 수 있는 매체가 될 수 있으면 좋겠다"며 "주민의 한사람으로서 이렇게 참여할 수 있어 기쁘고 앞으로 도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열심히 참여하겠다"고 뜻을 전했다.

김종률 추진위원장은 "현재 면지 편찬 집행진들이 주산면 마을과 인물에 관한 역사·문화를 담기 위해 마을 곳



곳을 방문하며 자료를 수집하고 있다"며, "객관적이고도 면민이 공감하는 면지 편찬이 될 수 있도록 위원 및 집행진과 함께 노력해나갈 것이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한편, 주산면지 편찬 추진위원회에서는 올해 11월 말 편찬을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적극 추진하고 있다.

/부안=김석진 기자

지구상에서 가장 빨리 뜨거워지고 있는 곳 '북극'

우리집을 지켜주세요

전문가에 따르면 자동차와 공장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량 증가로 인한 지구 온난화로 빙하들은 점점 녹고 있으며, 이는 지구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해양 얼음의 손실은 지구가 태양 광선을 효율적으로 반사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결국 지구 온도의 상승을 초래할 것이기 때문이다.

전주매일 지구온난화 캠페인